

“장애인 일자리 창출·복지·고용 위해 힘쓸 것”

장애인공단 광주본부 대호안전관리공사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근·광주지역본부)와 (주)대호안전관리공사(대표이사 박수용)는 13일 광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열었다. (사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포함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박수용 대표이사는 “평소 장애인고용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복지를 비롯해 장애인 자립과 고용환경에 보다 더 관심을 갖게됐다”며 “성공적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 이사는 지난 6월 중소기업인대회 철탑산 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김영근 광주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호안전관리공사가 중증장애인에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바란다”며 “공단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시설 설치 등에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취업 알선, 고용관리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 청소년 스포츠 안전캠프 개최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우)는 최근 광양부영빙상장에서 2021년 생활체육안전교실 청소년스포츠 안전캠프를 개최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호남대 산학협력단, 드림씨엔씨와 업무협약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윤인모)은 지난 12일 대학본부 3층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드림씨엔씨(대표이사 임수경)와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호남대 산학협력단과 드림씨엔씨는 이날 협약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채용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가의 교육 참여 및 산학연계 교육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호남대 제공>

한국 천주교 발전 큰 기여 진요한 신부 선종

흑산도성당 설립...전남서 사목활동



국내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며 한국 천주교 발전에 기여한 손 브라질(Sean Brazil·한국명 진요한) 신부가 8일 아일랜드에서 선종했다. 향년 89세.

13일 성골로반외방선교회에 따르면 1932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진요한 신부는 1948년 성골로반외방선교회에 입회했다. 1954년 사제서품을 받고서 이듬해 한국에 도착해 본격적인 사목활동에 나섰다.

그는 1956년 광주대학교 목포 산정동성당 보좌신부를 시작으로 1960년 흑산도성당과 1964년 소록도성당·산정동성당, 1970년 상봉동성당 주임신부 등을 지냈다.

진요한 신부는 30년 가까이 한국에 있는 동안 흑산도성당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상봉동성당, 창동성

당, 수원교구 단대동성당 등 전국에 19개 본당과 공소를 설립하는 등 한국 천주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교구(한인)순교자성당 주임신부를 하며 한인 교포 사목에도 힘썼다.

마라톤에 재능이 많아 선수로도 활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9년 먼저 세상을 뜨고(故) 김수환 추기경과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2년 한국을 떠난 그는 2004~2020년 아일랜드 달간파크 요양원 스테프로 있었다.

노년에 점차 건강이 나빠지면서 달간파크 요양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연철뉴스

한국인의 삶 앵글에 담아 온 화순출신 강봉규 작가 별세



화순출신 강봉규 사진작가가 1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한국인의 뿌리를 소중히 해온 작가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가꿔나가며 한국 사진사(史)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1959년 신문사 견습기자로 입사해 처음 카메라를 든 그는 1980년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며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사진부장 겸 출판국장을 지냈다.

빈소는 광주천지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 오전 8시. 유족으로 아들 상호(KBC 편성제작국장)·향호(삼화문화사 대표)·인호(전남대학교 외래교수) 씨가 있다. 문의 062-713-5022.

향호는 화순출신 강봉규 사진작가가 1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한국인의 뿌리를 소중히 해온 작가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가꿔나가며 한국 사진사(史)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1959년 신문사 견습기자로 입사해 처음 카메라를 든 그는 1980년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며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사진부장 겸 출판국장을 지냈다.

빈소는 광주천지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 오전 8시. 유족으로 아들 상호(KBC 편성제작국장)·향호(삼화문화사 대표)·인호(전남대학교 외래교수) 씨가 있다. 문의 062-713-502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소방안전본부,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 캠페인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최근 전남대병원 1동 로비에서 중증 응급질환자의 응급상황을 대비한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제공>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50 두 번째 남편(재)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국가대표 와이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이 맛에 산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안녕 우리말 2021 55 UHD 숨터	00 빨강 구두 스페셜	15 푸리가 식사교실(재) 45 똑딱구조대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50 박원숙의 같이 삼시다 3(재)	00 12 MBC 뉴스 20 검은태양(재)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35 원더우먼(재)
13	00 KBS네트워크특선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한국의 인류유산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1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팡팡 다이노 45 반짝반짝 달남이			
15	00 마법소년 디디 2 15 출동! 유우구조대 2 30 방과 후 초능력	00 KBS 뉴스타임 10 키오캐(재)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55 기본 좋은 날(재)	
16	00 시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17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느릿느릿 나무늘보 놀 2 15 몬스터 탑 30 농민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액션캠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전국체육대회 폐회식
18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19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빨강 구두	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0 두 번째 남편 40 MBC 뉴스테크	00 닥터 365 05 전국 TOP 10 가요쇼(재) 50 SBS 8 뉴스
20	30 일일연속극 국가대표 와이프	30 UHD 환경스페셜		30 KBC 8 뉴스
2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달리와 감자탕(재)	00 극한데뷔 야생돌	00 워맨스가 필요해
22	00 데뷔의 순간 시대를 바꾼 아티스트 50 더 라이브	40 오늘부터 무해하게		30 당신이 흑하는 사이 2
23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0 광주MBC 다크플렉스 건축의 시간	
24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5 영상앨범 산(재) 35 통합뉴스룸 ET(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검은태양(재)	20 나이트라인 50 닥터 365 55 앙코르 내고향 전파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아기사어 울리와 윌리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그리스 로마 신화 - 올림포스의 별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로보가 폴리	12:10 EBS 부모	19:05 미스터 마구
07:15 두디다콩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10 명의	19:5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7:45 최고의 호기심딱지	15:0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땀땀 땀 땀 땀	15:25 클래스 e	<유라시아 견문록
08:30 한글용사 아이야	15:4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원반>
08:45 꼬마버스 타요	16:00 페파 피그	21:30 한국기행
09:00 시흥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가을에는 법심 4부 강따라 산 따라>
09:15 봉우야 말해줘3	16:30 땀땀 땀 땀 땀	21:50 그곳에 사람이 있다
09:30 통통가족	16:50 내 친구 문덕이	22:40 세상의 모든 법칙
09:40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2: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23:05 빅데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4일(음 9월 9일 乙未)

36년생 상당한 충격 속에서 자금을 받게 될 것이니라. 48년생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생산적이다. 60년생 여 기저지에서 불편한 문제들이 속출하는 대목이다. 72년생 수전에 대비를 잘 해둬야 자질이 없을 것이다. 84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발전을 이끈다. 96년생 맹목적이거나 오류를 낳을 뿐이다. 행운의 숫자 : 43, 57	42년생 허장성세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준비해 왔다면 매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54년생 속임수에 넘어가면 사고 나게 되어 있다. 66년생 지나친 기교가 오히려 불평함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 실질 위주로 임하라. 78년생 바쁘게 쏘다녀야 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90년생 안되면 되게 하라. 02년생 능숙하지 못한다면 속히 도움을 청하자. 행운의 숫자 : 22, 81
37년생 열려할 정도는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 49년생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간소화 하자. 61년생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최선임을 분명히 알아. 73년생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도 전혀 무리는 없겠다. 85년생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 임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97년생 문제점이 보이지 잘 찾아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23, 70	43년생 물이 깊은 곳이라야 큰 고기가 모이는 법이다. 55년생 기미가 보이거든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67년생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맑은 햇살이 가까이 다가온다. 79년생 가깝게 주고받는 말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91년생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03년생 조금만 더 인력한다면 목적이야 도달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94
38년생 어떠한 국량이라 해도 핵심적인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50년생 한 순간에 절호의 찬스가 지나간다. 62년생 성공해 왔던 것에 대한 실마리를 찾게 된다. 74년생 상호간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면서 나가는 것이 순조롭다. 86년생 체계와 절차가 따름이 제일 중요하다. 98년생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아쉽다. 행운의 숫자 : 63, 79	32년생 쓸모가 없으니 체면은 빼들수록 유익하다. 44년생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모두 해결 될 것이니라. 56년생 어른이 사라지면서 맑은 햇살이 가까이 다가온다. 68년생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쇄적인 탄력을 받는다. 80년생 쉽게 오해할 수도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는 형국이다. 92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나겠다. 행운의 숫자 : 08, 67
39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51년생 선택의 선택을 잘 한다면 뒷일이 수월해지리라. 63년생 생산성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75년생 의도대로 실행한다면 무난하리라. 87년생 확실한 의사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99년생 힘써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06, 71	33년생 응원의 묘리를 살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45년생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57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69년생 웃은 새 것이 좋고 사람은 오래 된 것이 좋은 법이다. 81년생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93년생 유익한 이외의 만남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18, 50
40년생 굳이 힘들여서 남에게 구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알뜰하다. 52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한다. 64년생 바로 그것이 자신이 찾고 있던 바이다. 76년생 숙의하는 과정에서 길한 결론에 이르리라. 88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효과를 본다. 00년생 약진하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2, 65	34년생 한계선을 허용한다면 수습하기 어려워진다. 46년생 몰입한다면 향상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58년생 혼자서 조용히 처리해도 되는 문제가 있다. 70년생 판국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 82년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없고 안전하다. 94년생 길잡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득세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97
41년생 조금의 편의를 도모하다가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53년생 규모를 따지기 이전에 발생 자체에 의미를 갖게 되리라. 65년생 알뜰하고 투명한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가짜 판국에서 진짜가 파문하는 예석함이 보인다. 89년생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가 괴로워 할 수도 있다. 01년생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33, 88	35년생 정황을 인식하고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47년생 일 반적인 방법에 채택이 무난하다. 59년생 밝은 지혜로써 살피고 정확히 개진해야 할 판국이다. 71년생 공전의 판국을 이끌만한 찬스이니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다. 83년생 나중으로 미루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95년생 두루 살피는 것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02, 64